



이스라엘에 부는 녹차열풍

파리지사

음료에 건강을 더하다

- 이스라엘은 음료문화가 발달하여 전 국민이 통상 하루에 적어도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한다.
- 최근 이스라엘인의 음료시장은 건강식 소비트렌드와 더불어 프리미엄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시즌음료와 해외음료가 수입되면서 다양한 음료문화를 보이고 있다.

이스라엘의 차시장이 변화한다

- 이스라엘의 2017년 차시장의 매출은 물량기준 1,611톤, 가격기준 4억7천3백만 셰켈(한화 약 1,453억원)을 기록해, 전년대비 각각 2%, 4%의 매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.

-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매출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, 2022년에는 물량 1,744.9톤, 가격 578.1백만 셰켈(약 1조 7,761억원)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홍차에서 녹차로, 녹차의 진한 열풍

- 녹차는 최근 6년동안 연평균 14.1%의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 녹차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차로 등극했으며,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기 차 품목이 홍차에서 녹차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.

- 녹차 시장점유율 1위인 Wissotzky Tea는 새로운 녹차를 꾸준히 개발·출시하고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녹차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일조했다. 앞으로도 이스라엘인의 녹차 소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Wissotzky Tea의 녹차 제품들



현지 입맛에 맞춘 차음료 개발로 시장개척

- 최근 이스라엘 내에서 건강한 먹거리와 차음료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녹차 및 차류의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. 이에 따라 현지 트렌드에 맞춘 맛과 향상된 품질의 차음료를 개발한다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.
- 한국의 이스라엘 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출 품목 중 차류와 녹차의 수출은 미미한 상황이다. 2022년에는 이스라엘의 녹차 및 차시장은 4.1%, 6.8%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.

이스라엘의 차 종류별 매출현황

(단위: 세켈, ILS*)

구분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
 녹차	99.4	118.4	136.5	156.8	176.2	192.4
 홍차	133.5	135.3	138.1	142.1	144.6	146.2
 과일/허브 차	113.1	113.7	113.6	114.9	116.6	118.4
 인스턴트 차	1.9	1.9	1.9	1.9	1.9	1.9

* 이스라엘 화폐단위(1세켈=311.49원, 18.06.07기준)

출처 : 유로모니터 (2018.2)

www.portal.euromonitor.com, TEA IN ISRAEL, www.wtea.com